

# “연구원 설립 초발심을 되새기자”

##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이하 연구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보조 지눌 사상을 종교를 초월한 인류사상으로 흥법하고자 개원한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기라성 같은 구성원으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송광사 주지 현호 스님이 이사장을, 법성 스님이 원장을,故 이종익·심재룡 교수를 비롯해 법산 스님 권기종 김희성 한기두 박성배 로버트 버스웰 등 한국불교학 대표 학자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에는 돈점논쟁의 주역으로 교계에 깨달음의 토론 열풍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성철선사상연구원 등의 개원에 자극을 줬다. 교계 최초로 학진등재지에 선정되는 등 연구원이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정기학술대회 20회, 월례학술세미나 87회라는 숫자만으로도 증명된다.

가장 큰 성과라면 단연 인재발사. 신진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장기간의 토론 끝에 2인의 논평가 등으로부터 철저히 담금질 됐다. 한국불교학의 주축으로 불교학 연구자들을 견인해 온 연구원이 배출한 학자들은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영재 교수(서강대), 임승택 교수(경북대) 등 국내 보조사상 전문가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연구원이 20세 청년이 된 2008년 12월 6일, 보조 스님의 수선사 전통을 이어 온 송광사 문중스님들과 한국불교학 대표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원이 서울 법륜사(주지 보경)에서 ‘보조사상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는 20년 전 연구원 설립 열기가 오늘까지 오롯이 이어지고 있었다.

행사에는 권기종 명예교수(동국대)가 ‘지눌사상의 재조명’을, 강건기 명예교수(전북대)가 ‘인간학으로서의 보조사상’을, 김희성 명예교수(서강대)가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본 지눌의 선사상’을, 최병현 명예교수(서울대)가 ‘지눌 이후의 수선사’를, 법산 스님이 ‘조계종, 송광사 그리고 보조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 #보조사상 진위 다시 가려야

권기종 교수는 보조 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문헌들의 진위를 거론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저술진위가 의심됨에도 이

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사상을 연구해왔다”며 “보조 스님의 저술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지눌 사상이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종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조 스님의 사상은 정혜쌍수, 돈오점수, 선교일원 등이다. 권 교수는 “정혜쌍수의 수행방법은 돈오점수”라며 “돈오는 혜(慧) 수행, 점수해야 할 것은 정 수행”이라 정리했다. 권기종 교수는 이어 “선교일원(禪教一元) 사상은 간화경절사상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절문은 언어와 문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불립문자를 표방한 교외별전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보조사상으로 전개됐던 간화경절문 사상을 비롯해 정토 사상과 삼문체계의 선사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조사상으로 난제 풀 수 있어

보조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도 시도됐다. 강건기 교수는 “보조사상은 인간회복, 자기회복의 원음”이라며 “잃어버린 ‘참나’의 회복을 강조하는 보조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환경파괴, 자기상실이 라는 심각한 병을 치유할 훌륭한 처

방”이라 강조했다.

연구원 활동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아직도 보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술이 없다”며 “보조사상 연구의 현실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적인 보조 스님 관련 서적 출간과 외국어 번역본 발행, 웹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전산화 작업이 강건기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다. 강 교수는 “보조사상이 일부 출가자가 아닌 대중의 생활 속에서 숨길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건기 교수는 “정혜결사는 출가자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린 회상(會上)이었다”며 “보조사상의 연구와 선양이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교수는 지눌과 엑카르트, 라마나의 사상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절대와 상대의 완벽한 합일이라는 점에서 지눌과 라마나의 사상은 일치한다. 개신교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엑카르트 역시 그 궤를 같이해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현 교수와 법산 스님은 각각 지눌과 혜심의 사상적 연결고리와 보조사상



보조 지눌 스님 진영.

연구원 설립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법산 스님은 학술대회 전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과제로 초창기 보조선 중심으로 한국선을 다뤘으나 앞으로 학제간 연구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현호 스님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다시 모인 연구원은 단순한 20주년 기념행사가 아닌 연구원 설립 초발심을 되새기자는 화합과 정진의 마당이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 버팀목 진흥원 변해야 산다”

## ‘진흥원’ 주제 불교와 사회포럼 토론회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사장 선출과 예산지원 문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진흥원 이사 선임 논란 등 잇따른 구설 시비에 휘말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교계 전문가를 모아 여론을 청취했다.

진흥원은 12월 2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불교 진흥 활동의 어제·오늘·앞날’을 주제로 불교와 사회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진흥원 김규철 상임이사, 명호근 이사, 김재영 교수(동방불교대), 이용부 공동대표(사찰문화연구원),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이학중 대표기자(미디어부), 정성운 대표(불교정보센터), 서화동 기자(한국경제신문), 서민진 임연태 부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흥원이 불교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각론은 달랐어도 ‘선택’과 ‘집

중’을 화두로 “진흥원이 바뀌어야 산다”는 주장은 한결 같았다.

김재영 교수는 “교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교계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연태 부국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존재감이 약했다”며 “보이는 손으로 이끌고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국장은 “진흥원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서 교수와 정성운 대표 등은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진흥원 이름답게 ‘진흥’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 외부기관 평가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규철 상임이사는 토론에 앞서 “올바르고 건설적 의견은 어떤 말이라도 달게 듣겠다”고 말했으나, 조계종과 불교방송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조동섭 기자

#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밝은사람들 12월 13일 연찬회

선(先) 교재 발간 후(後) 세미나 개최로 불교계 학회에 새바람을 불고 왔던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초기불교) △김진두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론

학연구원·선불교 △박찬국 교수(서울대·서양철학) △권석만 교수(서울대·심리학) △김종주 원장(김종주선경정신과의원·정신의학) △우희종 교수(서울대·생물면역학)가 참가해 주제발표 한다.

교재는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운주사 출간) 값 2만3000원. 도서문의 (02)3672-7181, 행사문의 010-2391-5629 조동섭 기자

# “거북머리에서 용머리 변화 단계 보여줘”

## 경주 무장사 거북 모양 비석받침돌 발견

경주시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보물 제125호) 복원을 위한 현지조사 중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龜趺) 머리 1점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주시(시장 백상승)와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 비신 복원을 위해 11월 20일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귀부 좌측면 머리 1점을 발견했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이 석비는 신라 제39대 소성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왕비 계화왕후가 아미타불상을 조성해 무장사에 봉안한 내력을 새긴 것이다.

조선 선조 17년(1817년) 추사 김정

희가 발견한 비편 2점과 1914년 발견된 비편 1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963년 보물 제125호로 지정됐으나, 지정 당시부터 비신은 없고 쌍귀부 머리 1쌍이 파손돼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견된 머리는 귀부 양식이 거북머리에서 용머리로 변화해 가는 중간단계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2009년 비신 복원 사업 때 발견한 머리 부분의 제자리를



경주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 비신 복원을 위한 현장 조사중 발견된 거북머리.

찾아줄 예정”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 한·중교류 포럼

## 원각불교사상학 18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관문사에서 한·중교류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화해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양준문 소장(중국불교문화연구소)이 ‘중국불교에서 화해사회 건설의 이론에 대한 탐색과 실천’을, 권기종 원장이 ‘불교의 화해이론과 실천방안’을 각각 기조발표한다.

이어 기화전 박사(중국사회과학원, 윤이홍 명예교수(서울대), 김상현 교수(동국대), 지창규 교수(동국대) 등 6인의 학자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 칸트와 불교의 소통

## 한국칸트학회 13일

한국칸트학회(회장 최인숙)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을 주제로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가 ‘경험세계의 가상성’을 △정승석 교수(동국대)가 ‘업보의 논리와 윤리적 요청’을 △배의용 교수(동국대)가 ‘불교 유식학과 초월 관념론에서 질료의 아프리카와 주관의 이중성’을 △김진 교수(울산대)가 ‘칸트와 불교’를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발표한다. (02)2260-3180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

# 종교 갈등 해결방안 모색

## ‘불교평론’ 37집 출간

계간 <불교평론> 제37집(겨울호)이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지난 여름 한반도를 달군 종교편향 논란을 계기로 종교 갈등 해결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종교 갈등, 해결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곽병찬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의 ‘종교 갈등, 그 불행의 세계사’ △이거룡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이웃 종교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서명원 교수(서강대)의

‘종교 간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서’ △남태욱 목사(서초동 열린교회)의 ‘종교편향과 차별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본지 임연태 부국장의 ‘종교편향 대한민국에 있는 고질병’이 게재됐다.

기획기사는 ‘불상생, 선택인가 당위인가’를 주제로 육식문화를 조명한 김성철 교수(동국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등의 글이 실렸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 빙의 퇴마 최면을 전문합니다

## 빙의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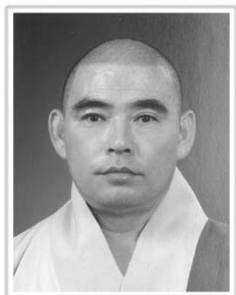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경남복지고등학교 보건간호과

## 3년제 / 2년제 학생모집

3년제(現, 중 3) / 2년제(성인반) 고등학교 과정 (보건간호과)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경남 최초의 보건간호과(간호전공 / 실버케어전공) 인가  
보다 앞서 가는 간호 전문 교육  
보건간호 교육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 실습장 최다 보유  
· 덕 · 체를 완성하는 인성 교육의 장  
민하지 마세요! 경남복지고등학교는 항상 열려 있어요!